

# 2011문화라는 것- 건축은 문화인가?

Architecture as Culture?



조인숙 | Cho, In-Souk, KIRA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수료 (석·박사)
- 독일 뮌헨대 및 뮌헨공대 수학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 대통령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위원(제3기, 제4기)
- ICOMOS 한국위원회 위원

“건축이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결정체”라고 모두가 공감한다. 또한 “건축을 짓는 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그것을 다루는 건축사나 기술자, 기능자들의 문화적인 솜씨와 안목으로 만들어져서 고유의 역사문화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인류의 유산으로 남은 것이 문화로서의 건축이다.”라고 재천명(再闡明)한다. 이러한 건축이 현실에서 문화 활동으로 인식되도록 사회적 통념을 바꾸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2010년 대한민국문화예술상은 뮤지컬제작사 대표, 시인, 미술연구소장, 국악관현악단 지휘자 및 발레단이 수상했다. 문화예술상이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분야가 대상이 된 적이 없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나서서 건축사를 적극 추천해서 심사했으나 건축분야는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건축분야 심사위원은 네 사람의 미술계 인사와 한 사람의 건축가였다.

이렇듯 사회가 인식하는 문화 관련분야란 아직까지는 공연예술과 미술·설치관련 및 문학창작 등만이 해당된다. 소리를 내고 울동을 해야 문화지 건물을 환경과 어울리게 지어서 도시를 가꾸는 것은 문화로 미처 인식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게다가 기존의 건축유산을 찾아내어 조사연구하고 수리하여 복구하며 보존하는 일에서 어려운 과정은 간 곳 없고 그 열매인 결과만이 오로지 관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그 유산이 누가 만들었고 그것이 어떻게 문화로 남았는지에 대한 배려란 전혀 없다.

문화라는 우산을 쓰고 있는 인적구성인 청와대 비서관, 문광부장·차관 및 그 후보들과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가 언론인, 예능인 또는 전문정치인 출신이다. 그러니 이들이 문화로서의 건축을 위한 법안 수

립이나 예산수립 및 예산집행에 얼마만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각종 문화회관 등의 운영도 지휘자 또는 언론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며 게다가 문광부 해외 문화원장들이란 대개 정권 쟁취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들 및 행정공무원들뿐이다. 국제조직인 유네스코 사무총장이나 유네스코문화예술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정치바라기나 공연예술계 인사다. 그런 자리에 건축계가 기용된다면 아직 한참 가야한다고 본다.

한편 문광부는 건축을 문화로 인식한다는 표현의 하나로 참여 정부 이래 공간문화과를 신설하여 주로 근·현대 건축물의 재활용 및 창작공간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건축에 문화라는 옷을 입히려 나름 애를 쓰고는 있다. 이에 발맞추어 국토해양부도 건축문화과를 두어 한옥의 보급에 대해 각종 연구를 한다고 한다. 또한 현 정부에는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인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뭘 하는 조직인지 위원 당사자들 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문광부 등록단체인 건축가협회도 건축을 문화로 인식시키기 위해 사회와의 다리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은 그렇지 못하다. 안타깝게도 역대 회장들 그 어느 누구도 임기 종료 후 정부훈장 수여 받은 이외에 사회나 건축계를 위한 공로를 세우기는 쉽지 않았다. 그들의 문화 활동이란 대개는 어쩔 수 없는 용역의 먹이사슬관계 속에서의 활동뿐이었다.

어쩌다 건축사가 문화예술관련 기관장 후보나 정부표창 후보가 되어 동료건축사가 심사하게 되었는데 그 심사위원과 학맥이나 친분관계가 없으니 만들어 놓은 상이나 다된 자리마저 다른 분야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건축계의 현실이다. ■